

축구&

10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LPGA 창립멤버 스미스 향년 89세 일기로 별세



마릴린 스미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창립자이자 골프 명예의 전당 멤버인 마릴린 스미스가 10일(한국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스미스는 1950년 동료 마릴린 스미스 12명과 함께 LPGA 투어를 만든 주인공이다. 지난달 25일 뱅크오브호프 파운더스컵에서 박성현과 인사를 나눴던 장면이 생전 대중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됐다.

LPGA 투어 마이클 왕 커미셔너는 선구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스미스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났으며,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주었습니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LPGA 투어는 스미스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13인의 LPGA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릴린 스미스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스미스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뱅크오브호프 파운더스컵에서 대중 앞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고인은 당시 건강한 모습으로 18번 홀 그린 뒤에 설치된 단상에 앉아 후배들을 격려하고 대중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스미스는 선수로서 통산 21승을 거뒀으며 이 중 두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LPGA의 대표(President)로 조직을 이끌었고, 1973년에는 TV 중계에서 최초의 남성골프 대회를 해설했습니다. 이어 스미스는 2006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한국당 2000만원 배상 거부해 경남FC, 축구협회에 재심 청구

경기장 선거유세 사건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은 10일 “경남FC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운 후보는 지난달 2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선거유세를 펼쳤다. K리그는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은 이에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됐고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은 자유한국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식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대납을 하지는 않았다.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심사해 징계 결정 취소 또는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경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울산, 가와사키 1-0 제압…ACL H조 선두



김수안 극장골 정성룡 울렸다

〈가와사키 GK〉

울산 현대가 1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2019 ACL 조별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수안(앞 오른쪽)의 극적인 헤더로 1-0 승리를 거뒀다. ACL 2승1무를 달리며 순항을 이어갔다. 결승골 직후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는 김수안.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후반 39분 교체출전, 추가시간 결승골 대구는 빈공 끝 히로시마에 0-2 완패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나란히 출격했던 울산 현대와 대구FC의 명암이 엇갈렸다.

울산은 10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3라운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를 1-0으로 물리쳤다. 조별리그 전적 2승1무(승점 7). 후반 39분 교체 투입된 공격수 김수안의 추가시간 헤딩 결승골이 답답한 균형을 깼다.

반면 같은 날 산프레체 히로시마 원정에 나선 F조 대구는 극심한 빈공 끝에 0-2로

무릎을 꿇어 연승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2승1패(승점 6). 울산과 맞선 J리그 디펜딩 챔피언 가와사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전 국가대표 수문장 정성룡과 2012런던올림픽 득점왕 출신 다미앙(브라질), 2012년 ‘아키’라는 이름으로 울산에 몸담았던 야기히로 이 에나가를 보유했다. 김도훈 울산 감독은 “가와사키는 패스의 질, 공수 균형이 좋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래도 자신감은 있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울산은 4연패를 하며 수세에 몰린 반면 올해는 8경기 무패(리그 4승2무, ACL 1승1무)를 달려왔다. 치열한 동계전지훈련의 효과다. 오니키 토루 가와사키 감독은 “(울산은) 빠른 측면과 전방의 힘, 디펜

스가 탄탄하다”고 칭찬했다.

초반부터 치열했다. 경기점유율에서 60% 대 40%로 앞선 가와사키가 많은 슈트를 시도하며 흐름을 잡으려 했으나 브라질 골키퍼 주니오를 원 톱, 김보경-김태환을 2선 측면에 배치한 울산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계속 받아쳤다.

0-0에서 시작한 후반전은 김인성을 교체 투입한 울산이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볼을 넓게 돌리며 다양한 루트개척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육탄방어에 걸렸고, 믹스의 중거리 슈트는 정성룡이 막았다. 주니오의 헤딩도 높게 땀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세트피스도 살리지 못했다. 다행히 가와사키의 역습도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울산은 한 방이 있었다. 2분 주어진 추가시간을 잘 살렸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띄운 크로스를 김수안이 헤딩 골로 연결했다.

이로써 아시아 무대에서 이뤄진 올 시즌 첫 번째 클럽 한일전에서 K리그는 종합전적 2승2패를 기록했다. 전날(9일) G조 전북 현대가 우라와 레드 원정에서 브라질 공격수 아드리아노의 결승포를 앞세워 1-0으로 이겼지만 F조 경남FC는 가시마 엔트러스와 안방대결에서 2-0으로 앞서다 후반 추가시간 두 골을 내주며 충격적인 2-3 역전패를 허용했다. 한일 클럽의 리턴 매치(조별리그 4라운드)는 장소를 바꿔 23,24일 진행된다.

울산 |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윤덕여호, 유럽 벽 깰 해법은 ‘용기·체력·조직력’

‘가장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상대 1무1패
투지는 기본…체력·조직력 보완 숙제로

여자축구국가대표팀은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과를 희망한다.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개최국 프랑스와 대회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된 한국은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차례로 격돌한다.

여자대표팀 윤덕여 감독의 시나리오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프랑스전은 잘 버티고 남은 두 경기에서 승부수를 띄울 참이다. 1승1무 정도면 토너먼트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4년 전 캐나다 대회에서도 한국은 스페인을 꺾고, 코스타리카와 비겨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물론 유럽과 대결이 중요하다. 4월 아이슬란드와 두 차례 A매치 시리즈가 탄생한 배경이다. 대한축구협회는 4개국 친선대회를 추진했지만 동아시아 원정은 모두에게 부담이 컸다. 다행히 아이슬란드는 나쁜 상대가 아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과 대등하게 겨룬 다크호스 이상의 실력자다.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인 체구에서 나오는 힘과 체력은 노르웨이와 유사했다. 한국 원정에 입한 선수 대부분의 신장이 180cm에 달했다. 경기도 용인과 강원도 춘천을 이동하며 치른 두 경기를 1무1패로 마친 윤 감독은 “월드컵 해법을 찾았다. 우리의 방향도

확인했다”고 털어놓았다. 답은 3가지로 압축됐다. 용기와 체력, 조직이다.

체력이 유리함은 줄 수 있어도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체력은 보완할 수 없다. 작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윤 감독은 말했다. 축구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건 겉 없이 달려드는 ‘잃을 것 없는’ 팀이다.

체력도 중요하다. 큰 골격이 체력의 동의어는 아니다. 쉽지가 그라운드를 누비고 공세에 대응하려면 지구력이 필수다. 조직력도 여기서 비롯된다. 아이슬란드는 재공권에서 한국을 압도했다. 리바운드 볼을 낚아

채는 횟수도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2차전을 유리하게 풀어간 것은 두 세 명이 에워싸며 펼친 ‘벌떼 축구’가 통했기 때문이다. 조직으로 맞섰고, 여기서 희망을 얻었다.

한국은 5월 7일 최종 강화훈련에 나선다.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일부를 더해 최종엔트리(23명)보다 많은 26~27명이 캠프에 합류한다. 스웨덴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보충여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운명을 가늠한다. 윤 감독은 “다음달 훈련은 (아이슬란드전에서) 우리가 찾은 해법을 채우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 남창현 기자

세계종합격투기 대축제…로드FC 대중화 앞장

6일 MMA·킥복싱·주짓수 등 진행 김보성, 10대1 주짓수 스페셜 행사



종합격투기(MMA) 꿈나무들이 자신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추억을 쌓고, 경기 경험도 얻으며 더욱 성장했다.

세계격투스포츠협회(WFSO)와 로드FC는 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4회 세계종합격투기 대축제 및 제2회 로드FC 주



김보성

짓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경쟁을 하며 승패를 가리기도 했지만, 종합격투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WFSO 정문홍 회장, 로드FC 김태환 대표, 박상민 부대표와 로드FC 챔피언 및 파이터들이 모여 아이들과 함께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대회 운

영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굿네치킨과 바인그룹도 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식 개회식 후 경기는 MMA, 킥복싱, 주짓수 3가지 종목으로 분류돼 진행됐다. 종목별로 구역이 나뉘어 심판들의 안내에 따라 경기가 열렸다. 일반인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메드렉스병원에서 대회 시작부터 종료까지 함께했다.

스페셜 이벤트로 ‘의리 파이터’ 김보성이 어린 아이들과 10대 1 주짓수 경기를 하는 등 여러 볼거리도 제공했다. 김보성은 아이들과 함께 경기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

어졌다. 대회가 종료된 뒤에는 각 부문별 결과를

집계해 우승팀을 선정했다. 킥복싱 부문에 중앙무예스쿨, 종합격투기 부문에 다비드 집, 주짓수 부문에 팀 크러쉬 본관이 1위에 올랐다. 베스트 팀 부문에는 팀제이, 상승 SSMA 본관, 김태환MMA, 베스트 얼라이언스 부문에는 팀 싸우쿠다, 강한팀양승, 무림아이, 팀 쿨마가 선정됐다. 종합우승의 영예는 팀 강호가 차지했다. WFSO 정문홍 회장은 “대회를 할 때마다 아이들의 열정과 투지에 감탄하게 된다. 대한민국 격투기의 미래가 밝다는 것도 확인해 매우 기쁘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격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